

코로나 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2021. 2. 5.

홍민기 (노동연구원)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추정

□ 사용 자료 : A카드 일별 지출액

○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0년 8월말까지

○ 카드지출액의 소비 대표성

- 카드 사용액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약 70%
- 20대부터 60대까지는 지급수단 가운데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70대 이상은 약 40%)
- 본 연구에서는 카드 지출액이 소비지출을 잘 대표한다고 가정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
다른 통계를 통해 검증

□ 2020년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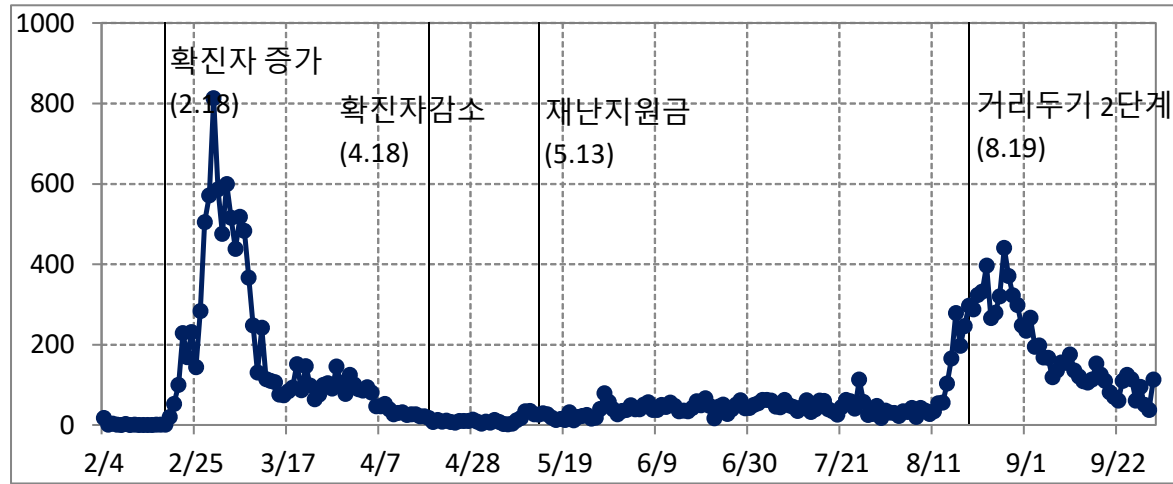
(1) **보편지급** :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단위, 세대주에게)

(2) **사용기간과 지역이 한정** :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사용.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업소는 제외.

(3) **지급규모가 컸다.** : 총 17.6조원 (중앙정부 14.2조원, 지자체 3.3조원).
일인당 평균 약 34만원 (세종 26.4만원, 대구 48.8만원)

□ 시기 구분, 평가 대상, 비교 시기

[그림 2]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



<표 4> 시기 구분, 평가 대상, 비교 시기

시기	기간	특징	평가 대상	비교시기
1기	1월 1일~2월 18일	코로나 확산 이전		
2기	2월 19일~4월 17일	코로나 확산 시작	코로나-19	1기
3기	4월 18일~5월 13일	확진자 감소	거리두기완화	2기
4기	5월 14일~7월 8일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3기
5기	7월 9일 이후		재난지원금	3기

□ 평가 방법 : 이중차분법

추정식 $\ln Y_i = \alpha + \beta T_i + \gamma B_i + \delta D_i + \epsilon_i$ (Y_i : i 일의 카드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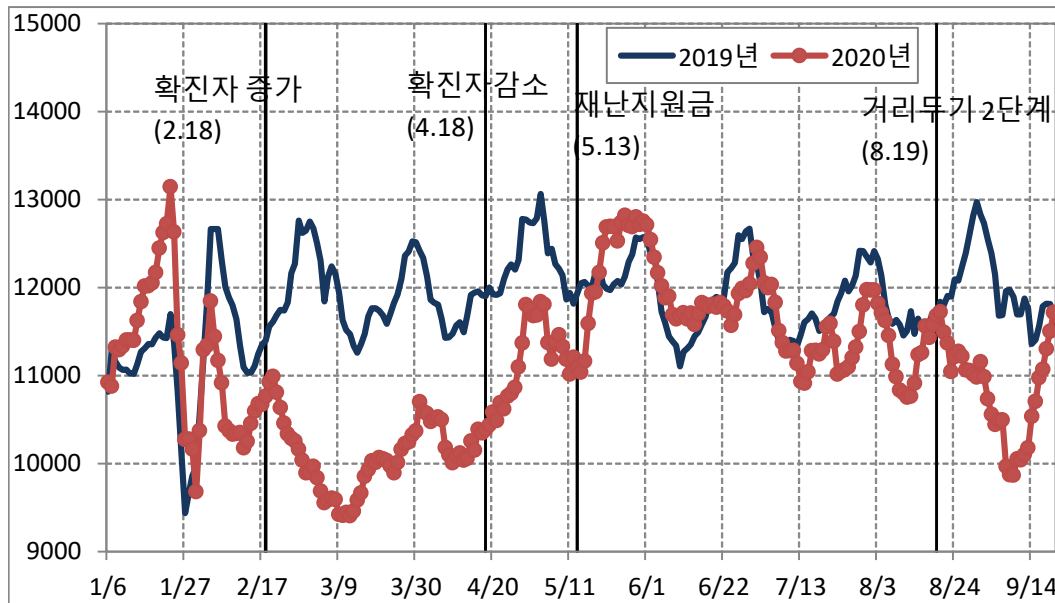
2020년이면 $B_i = 1$ 이고, 2019년이면 $B_i = 0$ (group effect)

평가 대상이 되는 사건의 시기를 $T_i = 1$ (time effect)

$D_i = B_i \times T_i$ (treatment effect)

- 평가 대상에 따라 표본의 시기를 달리함

[그림 3] 2019년과 2020년 A카드 매출액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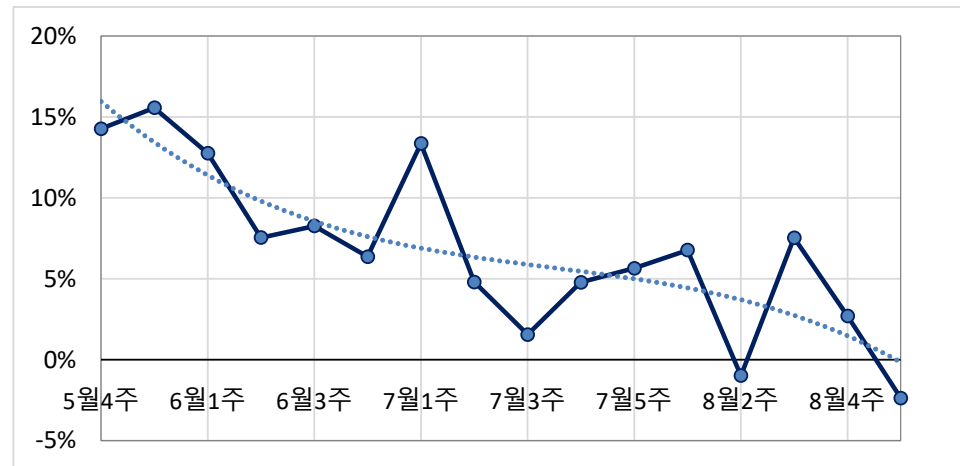


<표 6> 추정 결과

변수	(1)	(2)	(3)
코로나의 영향	-0.163* (0.049)		
거리두기 완화		0.073 (0.046)	
재난지원금			0.104* (0.044)
집단효과	-0.007 (0.036)	-0.170* (0.026)	-0.096* (0.036)
시간효과 2기	0.078* (0.035)		
시간효과 3기		0.026 (0.033)	
시간효과 4기			-0.024 (0.031)
포함된 시기	2기, 1기	3기, 2기	4기, 3기
관측치	215	170	164
R^2	0.111	0.257	0.052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는 5% 범위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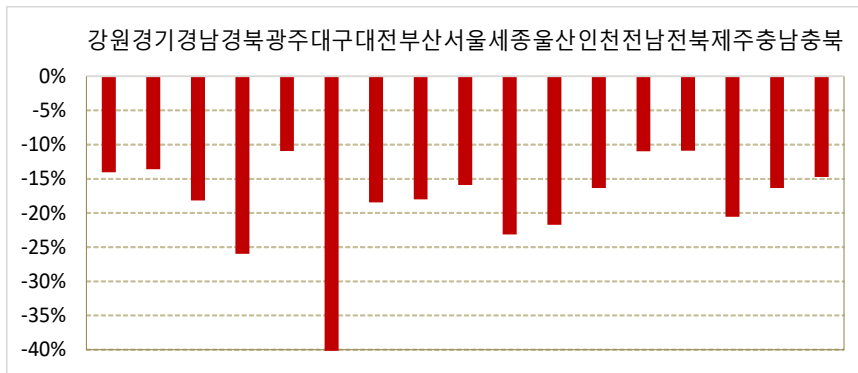
[그림 4] 재난지원금의 동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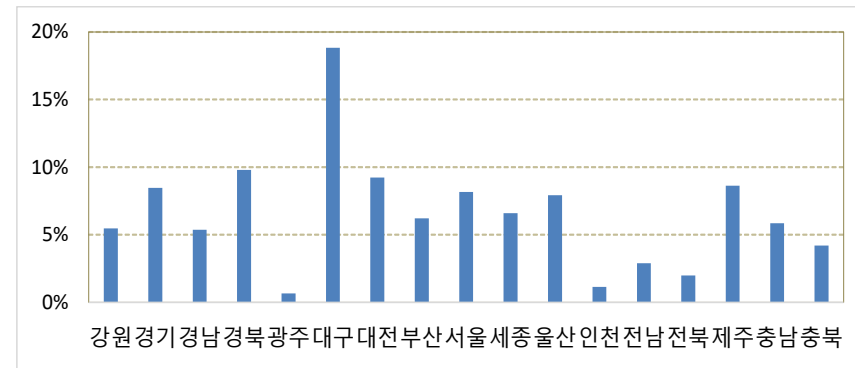
(주) 점선을 추세선을 가리킴.

□ 지역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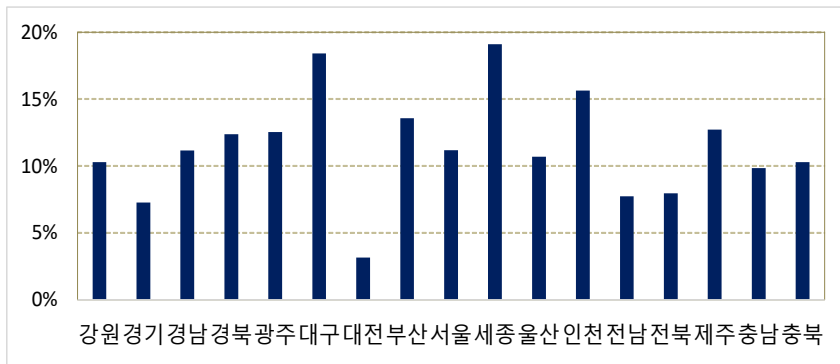
코로나 19가 지역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거리두기 완화가 지역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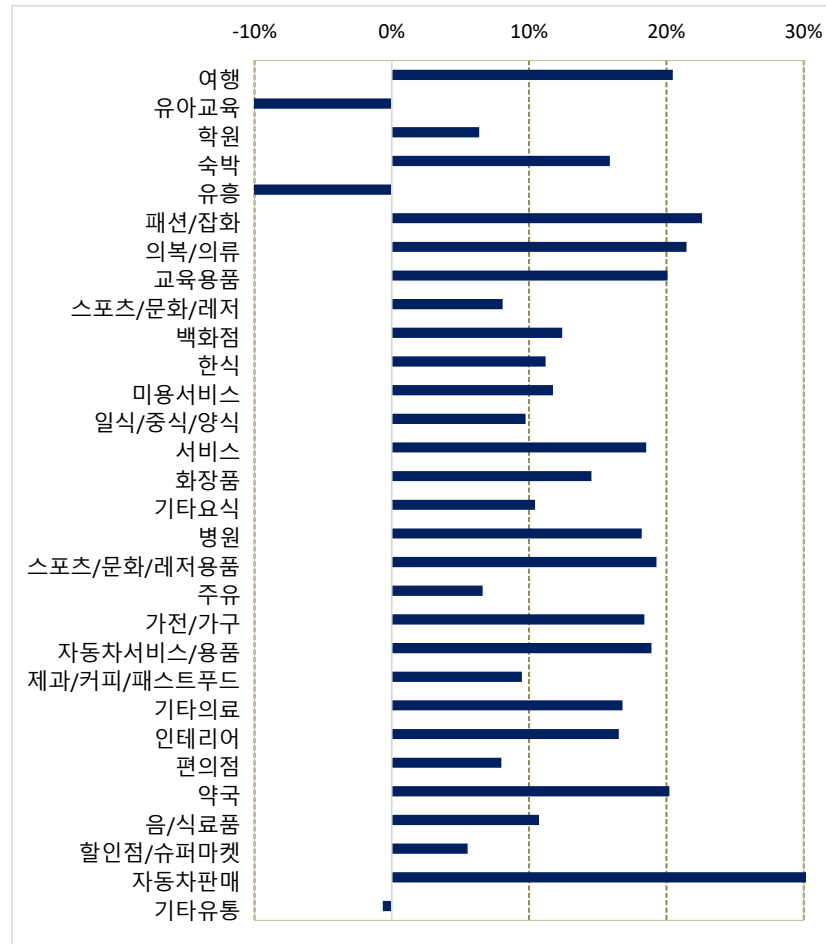


- 코로나 19의 피해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역별로 고르다.

[그림 8] 코로나19와 거리두기 완화가 업종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그림 10]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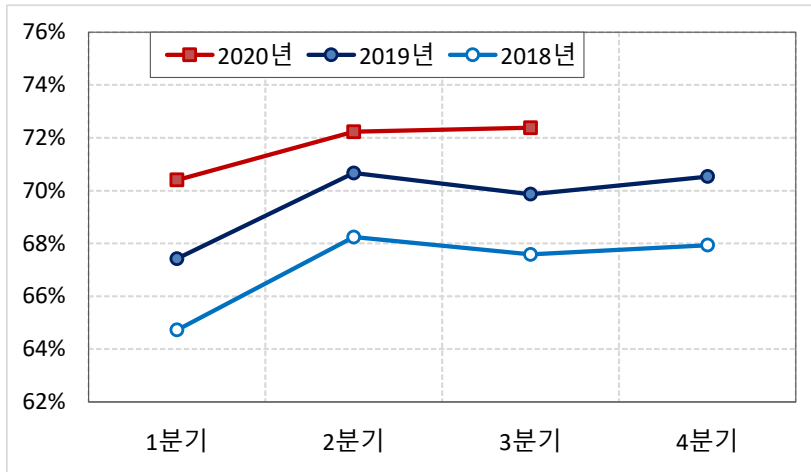
□ 결과에 대한 해석

-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 +10.4% (54일 동안에 대한 추정치)
- 소비효과 계산 : 국민계정 2분기 가계지출 210.6조원.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198.2조원
[산식 $X \cdot (1 + 0.104) \cdot (54/90) = 210.6$]
- 7월 8일까지 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13.6조원. **재난지원금(17.6조원)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0.704.**
8월말까지 소비효과는 +6.8%. 한계소비성향은 **0.762.**

□ 가능한 질문 : 재난지원금은 카드로 지급되었으니, 카드사용액이 평소보다 늘지 않았을까?

- 카드사용액 자료가 소비지출을 과대대표하지 않을까?

[그림] 분기별 개인카드 사용액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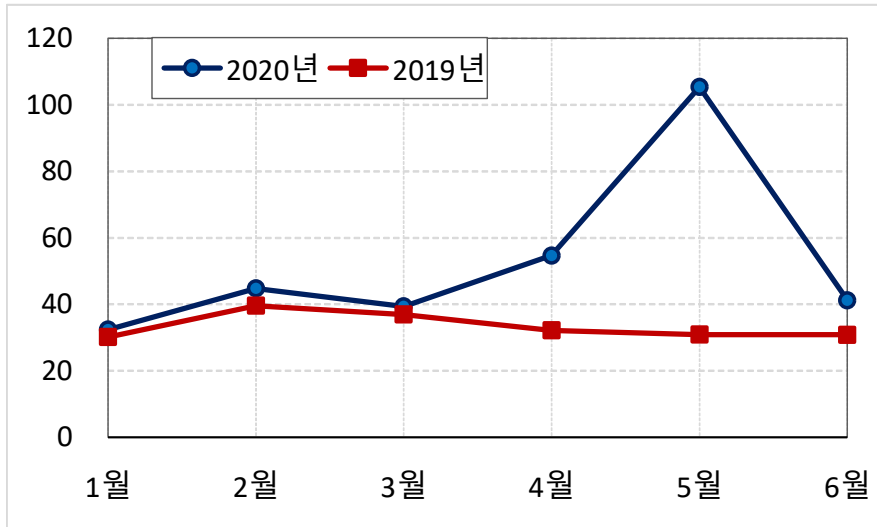


- 보통 2분기 카드사용 비중은 1분기에 높은 편인데, 2020년 2분기 카드사용 비중은 예년에 비해 낮은 편임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카드사용 비중을 늘렸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2분기 카드사용액 정보가 실제 소비지출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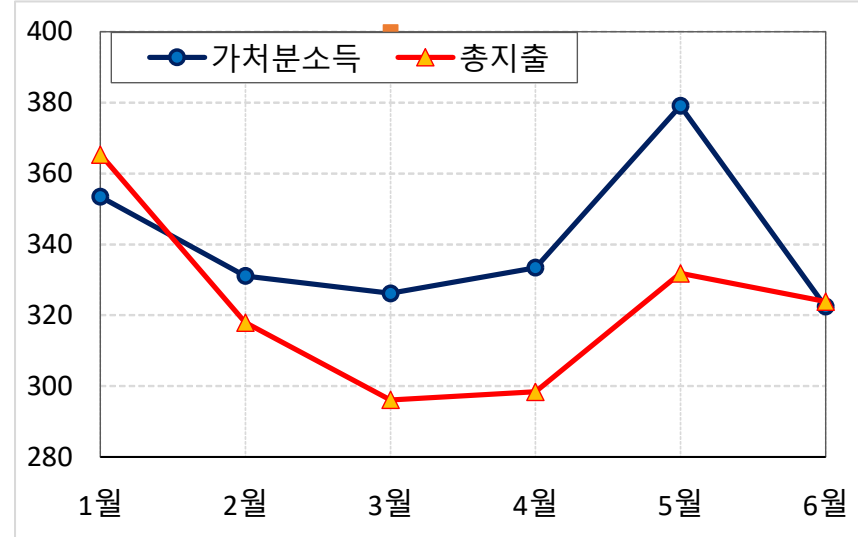
(자료) 가계소비지출은 국민계정. 카드사용액은 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

□ 가계동향조사 (1인이상) 월별 자료 분석 (자료의 출처 : 이승호(2021)의 연구. 해석은 발표자의 것임)

○ 공적이전 소득액 (만원)



○ 2020년 가처분소득과 총지출 (만원)



○ 공적이전 소득 : 4월에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적 지급이후 5월에 공적이전이 크게 증가

○ 가구 지출은 5월과 6월에 증가

○ 두 달 단위로 묶어서 분석

- 1,2월은 코로나 확산 이전. 5,6월은 공적이전과 소비지출 확대 시기,

- 4월에 공적이전이 증가함. 3,4월을 함께 묶으면 5,6월 공적이전과 소비지출의 효과를 약간 과소평가 가능

□ 가계동향조사 소득과 지출 (평균금액 : 만원) : 1인이상 가구 원자료

2020년	1-2월	3-4월 (1)	5-6월 (2)	차이 (2)-(1)
경상소득	438	403	434	30.3
근로소득	288	262	259	-3.7
사업소득	81	73	79	6.1
재산소득	4	3	2	-0.9
공적이전	39	47	73	26.3
사적이전	26	18	20	2.4
기초시장소득	373	339	340	1.6
총지출	342	297	328	30.6
소비지출	246	224	245	21.3
비소비지출	96	73	83	9.3
이자비용	9	8	9	0.5
소득-지출	97	106	106	-0.3

- 기초시장소득 = 근로 + 사업 + 재산소득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기타지출 : 적금, 부채 상환 등
(원자료에 변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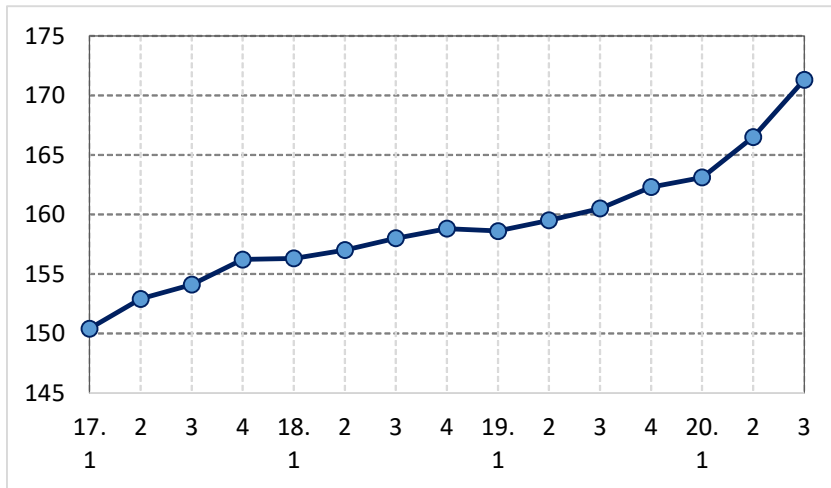
- 2020년 5·6월과 3·4월 사이에 공적이전소득이 26.3만원 증가, 경상소득은 30.3만원 증가
- 소비지출은 21.3만원 증가.

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0.704** (=21.3/30.3)

공적이전 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0.810** (=21.3/26.3)

- 비소비지출이 9.3만원 증가 (세금 +4.8만원, 가구간이전 +3.6만원, 이자 +0.5만원)
 특히 이자는 5천원 증가. 대출이자율이 4%라고 하면, 부채가 13.7만원 증가하였다는 것
 소득 증가분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경제전체적으로 보아도, 2020년에 가계부채는 증가.

[그림] 분기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소득-지출액, 즉 저축액은 이 기간동안 3천원 감소.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지출에, 나머지는 비소비지출(특히 세금과 사적이전지출)에 사용.
 저축을 하거나 부채를 갚지 않았다.
 이 결과는 카드지출액 자료로 추정된 결과와 동일.

□ 소득분위별 소득과 소비 변화 (2020년 1,2월과 3,4월 비교) (단위 : 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상소득	30.5	53.0	36.4	28.4	4.4
공적이전	25.0	37.1	26.2	20.9	21.8
총소비지출	11.6	32.3	13.2	29.4	20.5
소비/공적이전	0.465	0.871	0.505	1.404	0.940

- 고소득 가구에서 소비/공적이전 비율이 높았음 (향후 연구 과제).

□ 정부 이전과 관련된 기존 연구 문헌 가운데

- Parker et. al. (2013) : 미국 2008년 현금지급 (세금 환급의 형태), 지급액의 50~90%를 소비지출
- Coibion et. al. (2020) : 미국 2020년 3월 CARES법안 (성인 1인당 120\$, 자녀 +50\$ 현금지급)
미국 19000가구 조사, 평균적으로 40%를 지출, 30%는 저축, 30%는 부채상환
- Kubota. et. al. (2021) : 일본 코로나 대책, 1인당 10만엔 보편 지급, 약 49% 소비지출.
- 이론 : Baugh, Ben-David, Park, Parker(2021), Asymetric Consumption Smoothing
 - 예상된 소득 증가에 대해 소비를 증가시킨다. 소득감소(지출)이 예상될 때에는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 최상위 소득 가구나 유동성이 매우 높은 가구도 이렇게 한다.
 - 이러한 소비패턴은 Mental Accounting (Thaler, 99)과 부합.

□ 결론과 첨언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지출에, 나머지는 비소비지출(특히 세금과 사적이전지출)에 사용.
저축, 부채 상환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소비지출 효과가 보편/선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 소득과 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과의 관계는 좀 더 연구해 볼만한 대상.
- 긴급재난지원의 특징 : 사용 기간이 한정
 - 한정이 없는 현금 지급보다 소비지출 효과가 클 수 있음
- 소비지출 효과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의 한 부분.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도 가능.

■ 참고문헌

이승호 (2021),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코로나확산과 가계지출 변화, 노동연 보고서
Baugh, Ben-David, Park, Parker (2021), Asymmetric Consumption Smoothing, AER
Coibion, O, Y Gorodnichenko and M Weber (2020), “How did U.S. Consumers use their Stimulus Payments?”
Kubota, S, K Onishi and Y Toyama (2020), "Consumption responses to COVID-19 payments:
Parker, et al., (2013), “Consumer Spending and the Economic Stimulus Payments of 2008”, AER.